

##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 서사를 읽는 재미

김문희\*

<차 례>

1. 머리말
2. '임유린'의 인물 형상화 방향
3. '임유린' 서사의 구조와 사건 서술 방향
4.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 서사를 읽는 재미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악인형 인물 임유린 서사를 중심으로 <성현공숙렬기>의 소설적 재미를 새롭게 논의하는 데 있다.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은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범속한 인간형으로 형상화되고, 서술자의 반감과 동정의 이중적 시선을 받는 인물로 서술된다. 그래서 임유린은 독자에게 현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균적 인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소설적 리얼리티를 창출하여 새로운 재미를 제공한다. 또한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그리고 각성의 서사구조는 독자가 독서과정에서 정신적 성장이라는 해석코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교훈적 메시지를 새롭고 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독자가 자기의 삶을 서사 속에 투영하도록 하고 독자의 각성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건 서술의 방향에서는 규제에 대한 일탈과 징치에 대한 반복 서술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쾌락원리를 구현하여 독자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성현공숙렬기, 임유린 서사, 재미, 평균적 인간형, 성장의 해석코드, 쾌락원리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 1. 머리말

<성현공숙렬기>는 임씨 가문의 1대, 2대의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25권 25책의 장편가문소설이다. 임씨 가문의 갈등은 가부장 임한주가 아우의 아들 임희린을 임씨 가문의 적장자로 결정하면서 생기게 된다. 임한주는 첫째 부인 성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동생의 아들 임희린을 양자로 삼아 임씨 가문의 적장자로 삼는다. 둘째 부인 여씨가 들어와 임유린을 낳지만 임한주의 반대로 임유린은 적장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여씨 부인과 임유린은 임씨 가문의 적장자 자리를 놓고 임희린과 임희린의 부인 주소저를 없애기 위해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여씨 부인과 임유린의 악행은 성공하지 못하고 임희린의 지극한 효와 우애로 인해 여씨 부인과 임유린은 회개하여 온전한 임씨 가문의 일원이 된다.

<성현공숙렬기>에서 임유린은 여러 인물 중에서 주목되는 악인형 인물이다. 임유린은 어머니 여씨와 함께 핵심적인 악의 축이며, 서사를 추동하는 매우 역동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성현공숙렬기>에는 임유린의 계속되는 악행과 악행이 성공하지 못하는 과정, 그로 인한 유린에 느끼는 좌절과 고통이 매우 흥미롭게 서술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임유린’ 서사는 <성현공숙렬기>의 전체 서사가 역동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재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성현공숙렬기>의 기존 연구는 <성현공숙렬기>의 서지, 경개, 주제, 개평을 제시한 것<sup>1)</sup>과 <성현공숙렬기>와 <임씨삼대록> 연작 관계를 다루면서 두 작품의 관계와 의미를 논의한 것<sup>2)</sup>이 있다. <성현공숙렬기>만을 다룬 연구로는 계후 갈등<sup>3)</sup>과 부부 갈등<sup>4)</sup>의 문제를 논의한 것이 있다.

1)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757~767면.

2) 최길용, 『성현공숙렬기 연작소설 연구』, 『국어국문학』95호, 국어국문학회, 1986, 205~230면.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133~168면.

또한 현대어역 번역본을 내면서 <성현공숙렬기>의 서지, 작가와 연대, 가계도 등 작품에 대한 해제와 특징을 두루 논의한 것<sup>5)</sup>도 있으며, 김종철과 문용식은 <성현공숙렬기>의 인물의 형상을 연구하여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김종철은 <성현공숙렬기>의 욕망 세계와 악인형 특징을 언급하면서 여씨, 유린, 반연화와 같은 독특한 악인형의 창조는 평가할 만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씨와 유린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곳까지 가야 절망하고 돌아선다는 설정은 인간의 욕망 그 자체가 절대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는 것<sup>6)</sup>이라고 하였다.

문용식은 <성현공숙렬기>의 1세대 인물과 2세대 인물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그 중 임유린은 부친의 억압과 편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항거하는 인물로 평가하였다. <성현공숙렬기>의 서술자는 부친과 유린의 갈등을 냉정한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가문 창달의 욕구를 가진 부친에 대한 비판과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욕구를 지닌 유린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가한 것으로, 가족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전략<sup>7)</sup>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도 임유린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 
- 3) 박영희, 『18세기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갈등의 의미-<성현공숙렬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집, 1995, 187~216면.
  - 4)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27집, 동양고전학회, 2007, 8~34면.
  - 5) 김수봉, 『성현공숙렬기 해제』, 『성현공숙렬기』1, 한국학술정보, 2011, 8~18면.
  - 6) 김종철, 『성현공숙렬기의 인물 형상에 대하여』, 『한국문화』18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129~132면.
  - 7) 문용식, 『성현공숙렬기의 인물 형상과 작품 구조』, 『국제어문』18집, 서경대 출판부, 1997, 81~83면.

<성현공숙렬기>에서 임유린을 문제적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장편가문소설과 구별되는 <성현공숙렬기>의 쏠쏠한 재미는 임유린의 서사에서 찾을 수 있다. 임유린의 집요한 악행과 악행의 실패, 그리고 임유린의 고난의 서사는 다른 장편가문소설의 악인형 인물의 서사와 비교하면 새롭다. 서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임유린의 악행과 회과의 과정은 효와 우애를 지극하게 드러내는 임희린의 선행을 부각시키고 개과천선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 점은 장편가문소설에서 악인에서 선인으로 변화하는 개과형 인물의 서사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유린 서사는 개과천선의 중요성을 드러내지만 그 서사적 기능과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임유린의 행동과 처지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 태도, 임유린의 삶의 과정은 장편가문소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악인의 서사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현공숙렬기>에서 임유린의 서사는 독자의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이야기가 된다.

<성현공숙렬기>의 재미는 임유린 서사의 작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임유린 서사의 재미는 어떻게 창출되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인물 형상화 방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서사 구조와 사건 서술의 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유린의 인물 형상화 방법과 임유린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임유린의 서사 구조, 임유린의 사건에 대한 서술방향에서 발견되는 특이성을 중심으로 임유린 서사가 <성현공숙렬기>의 재미를 어떻게 창출하는가를 논의해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성현공숙렬기>의 악인형 남성 인물인 임유린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악인형 남성 인물의 서사가 장편가문소설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sup>8)</sup>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8) <성현공숙렬기>를 대상으로 악인형 남성 인물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장편가문소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대상 텍스트는 『한국고전소설총서』1~3권<sup>9)</sup>에 영인되어 있는 <성현공숙렬기>이다. 한 단락 이상의 긴 원문을 인용할 때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분만을 인용하여 본문에서 설명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현대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2. '임유린'의 인물 형상화 방향

### 1)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범속한 인간형

<성현공숙렬기>에서 임유린은 선비로서 수행하지 않고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범속(凡俗)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것은 임희린이 태어나면서부터 어진 성품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대현군자로 형상화되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임유린의 행동은 유가적 가치를 신념화하고 있는 임한주, 임한규, 임희린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문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임유린의 행동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임유린이 주소저를

---

설의 악인형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 본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 연구』, 『여성문학연구』18집, 한국여성문학회, 2008.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또한 조혜란은 <현몽쌍룡기>의 악인형 인물들의 악행이 작품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논의하였다. <현몽쌍룡기>의 악행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부자간의 강상윤리를 거스르는 범죄들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몽쌍룡기>는 진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락적인 읽을거리를 원하는 독자의 취향에 맞춰 창작된 잘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문제적 작품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2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91~394면.

9) 김기동 편, 『한국고전소설총서』1~3, 태학사, 1983.

한왕 고구에게 넘기기 위해 계락을 짜고 편지를 보내려다 임희린에게 발각되고 임유린은 임희린에게 한바탕 꾸중을 듣는다. 임희린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련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생활하는 임유린을 꾸짖는다. 임유린을 꾸짖는 임희린의 말 속에는 임유린의 일상적 행동이 그대로 제시된다.

남네 칠세를 지닌즉 세상 인스를 아나니 네 느히 십세를 지너엿거늘 전월의 선즈위 제스를 당하여 너와 너 추원 념모호미 지극하거늘 네 른득 당일의 진미와 고기를 먹고 스품이 보지 못흔 디셔는 음풍녕월을 타연이 하니 군즈는 암실 가온더 괴심을 두지 말나 하엿스니 너는 엇지 하여 너외로 스품을 속이며 부모를 괴이니 네의 념치의 웃듬 조목이고 막더흔 거산 군부를 닐으미라. 고즈의 부모지상의 념의 빙소하고 죽 먹으며 쥬육을 먹지 못흔다 하엿스니 가히 숨가지 아닐 비나 너 또 드르니 시셔를 슬히 녍기고 미양 쇼설을 조하 보며 언 〃이 벼슬과 미녀를 닐크라 상니 봉구황을 쓴홀 적이 업스니 이거시 또흔 가흐나 우형과 세린이 선훈을 어긔여 님신취쳐를 닐죽이 흐른 노흐신 존당의 명이라. 너는 오히려 밧브지 아니를 모로난다(『한국고전소설총서』1, 315~317면)

임희린이 임유린의 행동 중에서 문제삼는 것은 조상의 제사 때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을 그리워해야 하는데도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먹은 것, 음풍농월(吟風弄月)하는 것, 늘 부모를 속이는 것, 시경과 서경과 같은 경전보다는 소설을 좋아하며 보는 것, 벼슬과 미녀를 말하며 늘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봉구황곡(鳳求凰曲) 읊는 것 등이다. 임희린이 거론한 임유린의 행동은 수행하는 선비의 행동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나 일반인의 모습이다. 임희린은 사류(士類)로서 행동하지 않고 범속한 인간으로 행동하는 임유린을 비판하고 임유린이 선비로서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임유린의 이런 모습은 <성현공숙렬기>에 편재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임유린의 성격으로 형상화된다. 임한주가 출정하여 집을 비우고, 형인 임희린과 임세린이 잠시 집을 비우자 임유린은 하루 종일 후원에서 놀고 멋진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어지럽게 쏘며 사냥하며 즐긴다. 또한 임한주가 출정하기 전 임유린에게 5장 약법(約法)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선비가 지켜야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유린은 아버지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5장 약법을 지킬 것처럼 맹세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비우자 이것을 하나씩 어긴다. 임유린은 임희린과 달리 '수신섭행(修身攝行)'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범속한 인간형이다.

형과 형수를 죽이고자 하는 임유린의 극단적 악행은 독자의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선비로서 절제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유린의 모든 행동이 독자의 반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유린이 제삿날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먹고 음풍농월을 하거나 시경과 서경보다 소설을 좋아하는 것, 벼슬과 미녀를 생각하는 것, 후원에서 놀고, 사냥을 좋아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 아니라 유교적 가르침을 내면화하지 않고 현실적 욕망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행동이다. 엄격한 유가적 관점의 잣대로 본다면 임유린은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현실적인 욕망을 가진 범속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유린의 모습은 너그러운 시각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임유린이 임희린의 질책을 받고 땀을 흘리며 부끄러워하자 임희린은 이런 임유린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어여쁘게 본다는 서술은 독자가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임유린의 모습을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현공숙렬기>에서 임희린은 효와 우애, 수신섭행을 몸소 보여주는 엄격한 이념적 인간형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서 임희린의 선행이 반복될

때마다 독자는 과연 현실에서 이런 인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대현군자로서의 임희린의 행동과 태도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간적이라는 느낌은 적다. 그러나 임유린은 임희린과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임유린의 극단적 악행도 현실 속에서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임유린이 행하는 일상적 행동은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임유린은 엄격한 유교적 관념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욕망을 표출하는 현실적 인간형에 가깝다. 임유린이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범속한 인간형이라는 점이 임유린 서사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요건이 된다 하겠다.

## 2) 반감과 동정의 이중적 시각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은 악인이면서도 피해자라는 이중적 서술시각이 드러난다. 이것은 임유린에 대한 묘사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인물의 발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서술시각은 독자가 임유린에 대한 반감과 동정의 시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성현공숙렬기>에서 임유린은 뛰어난 외모를 지녔고 언변에 능하나 나쁜 심성을 가지고 형 임희린을 죽이고자 하는 악인형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임유린은 장편가문소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악인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러나 임유린은 장편가문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악인형 인물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꽤 있다. 임유린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서술, 임유린의 개과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이 텍스트 전반에 포석처럼 깔려 서술되기 때문이다.

임유린이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은 임유린의 타고난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임한주의 엄격함과 편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임한주가 임유린을 대하는 태도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엄격하게 따지는 관리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다.

임유린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로 묘사된다. 태부인이 임희린을 무릎 위에 올리고 무언가를 가르치면 임유린은 자신이 태부인에게 안겨야 직성이 풀린다. 다른 사람은 임유린의 이런 행동에 대해 무심하지만 임한주는 이런 임유린을 꾸짖고 경계한다.

임유린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위독한 척하며 이것이 임희린의 소행이라고 모함하지만 임한주는 임유린이 꾸민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임유린을 가문을 망하게 할 아들이라고 규정하며 더욱 미워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한주는 임유린에게 아버지로서 따뜻한 애정을 주지 않는다. 임유린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쳐 “대인이 원래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도 말고 전부터 공연히 혀를 차고 집안을 어지럽힐 자식이라 임씨 가문의 맑은 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린이 더욱 업신여기고 세린이 비웃으니 맹세하여 일세 중에 주유와 제갈공명을 함께 낸 한을 씻고자 합니다”(『한국고전소설총서』1, 138면)라고 어머니 여씨에게 말하기도 한다. 임유린의 이 말에는 임한주의 편애와 냉대를 임유린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잘 나타나 있다.

임유린에 대한 임한주의 태도는 임희린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임유린의 잘못은 심하게 질책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어느 날 임한주는 임유린이 글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험하게 되는데 임유린이 글공부에 소홀하여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자 임한주는 임유린의 피부가 문드러져 피가 솟아날 정도로 종아리를 때린다. 그런데 임희린이 임한주의 명을 거역하고 어머니에 대한 효를 차리기 위해 출거된 여씨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 여씨 가문으로 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한주는 임희

린을 꾸짖으며 4~5대의 종아리만 때리고 용서한다. 임유린은 피가 솟아 날 정도로 종아리를 맞고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와 “희린을 달초할 때는 살이 붓지도 았더니 나에게도 조금도 은정이 없구나(『한국고전소설총서』 1, 163면)”하며 분해한다. 태부인과 임한규도 임한주가 임희린을 편애하고 임유린을 지나치게 질책하는 태도를 문제삼고<sup>10)</sup> 애정으로 임유린을 가르치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사실 임한주가 임유린을 꾸짖고 아버지로서 애정을 주지 않는 이유는 집안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여씨에 대한 미움이 임유린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텍스트 전체에는 임유린을 대하는 임한주의 태도가 경직되고 과격하다는 평가가 자주 드러난다. 이런 서술시각 때문에 독자는 임유린의 악행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도 임유린의 처지를 동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임유린은 자신은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며,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임희린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가슴 속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형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다. 임유린이 가슴 속에 명울처럼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은 임유린이 악행을 저지르는 동기로 작용한다. 독자는 임유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다가도 임한주의 편벽된 말과 행동, 아버지에게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해 슬퍼하고 분해하는 임유린의 처지를 보면서 임유린에 대한 동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임유린의 악행은 아버지의 편애에서 비롯되고 이로 인해 악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10) 김종철과 임치균, 문용식도 임한주의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종철은 임한주가 편벽되고 경직된 인물이며, 작가가 명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런 유형의 거부장을 은연중 비판했다고 보았다. 임치균은 임한주의 태도가 과하다는 비판은 관태부인과 가족들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임유린이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이 임한주의 태도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용식은 임한주가 임희린을 편애하고 임유린을 냉대하는 것을 두고 임한주의 이중 인격의 모순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가문 창달의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종철, 앞의 논문, 119~120면. 임치균, 앞의 책, 153~154면. 문용식, 앞의 논문, 74면.

독자는 임유린도 상처받은 인간이라는 이해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유린은 독자에게 반감만 시는 완전한 악인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동정을 받는 인물이 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임유린을 완전한 악인으로 평가하지 않고 호탕한 영웅호걸형 인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각 역시 임유린에 대한 독자의 반감을 상쇄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주로 서술자의 평가와 인물의 말에서 나타난다. 서술자는 임유린을 “옥같은 얼굴에 호탕한 풍모는 두사인의 고운 얼굴이고 이태백의 술취한 풍채를 겸하여 문필이 넉넉하고 재기가 방탕하여 곁잡아 가다듬는다면 걸호준(傑豪俊)일 것이고, 놓아 외입한다면 왕형공과 이임보일 것이다.(『한국고전소설총서』1, 386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단적인 평가는 임유린이 호탕한 영웅호걸과 간악한 간신배의 양면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이 자질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따라 다른 인간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서술자의 평가는 임유린이 지금은 악행을 저지르지만 머지않아 개과할 것이라는 암시를 드러내고 독자가 임유린의 악행을 관대하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소저의 조카 주한림이 임희린에게 임유린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임유린에 대한 독자의 부정적 반감을 조절하는 발화를 발견할 수 있다. 주한림은 “평범한 사람과 의논하여도 동생(유린)의 사람됨이 마침내 어리석어 불길한 상은 아닌 바를 알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젊고 세상사를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저희 아버지와 숙부가 일찍 할머니께 고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유린이 뒷날 반드시 고모부의 행장(行狀)을 찬집할 것이라고 하셨던 바(4권 138쪽)”라고 말하며 임유린의 부정적인 모습이 변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발언은 임유린의 악행에 대한 독자의 반감을 중재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독자가 임유린에 대해 반감과 동정이라는 이중적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3. ‘임유린’ 서사의 구조와 사건 서술의 방향

#### 1) 악행과 고난, 각성의 서사구조

임유린의 서사는 임유린이 음모를 꾸며 악행을 저지르고 악행이 성공하지 못해 좌절되고 임유린이 고난을 받으며 점차로 각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구조를 보인다. 그러므로 임유린 서사는 악행과 고난, 각성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임유린이 임씨 가문 안에서 악행을 저지를 때는 주로 아버지 임한주의 꾸중과 체벌, 형 임희린의 충고와 숙부 임한규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임유린은 자신의 악행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는다. 임유린은 집을 나와 악행에 대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내면갈등을 겪으면서 각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씨 가문 안에서 임유린은 어머니 여씨와 이종 사촌 반관옥과 결탁하여 임희린과 주소저를 없애려고 한다. 임유린의 악행은 아버지 임한주에 의해 발각되고 그로 인해 임유린은 꾸지람을 듣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매를 맞고 아버지의 눈 밖에 나는 자식이 된다. 그러나 임유린은 아버지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악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임유린은 아버지가 집을 비우자 성욕이 발동하여 이웃집 유소저를 겁탈하려 갔다가 발각되어 형부에 고발되고 풀려나온다. 임유린은 숙부와 태부인의 질책이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출해버린다. 임유린은 집을 나와 한왕 고구와 함께 안과 밖에서 임희린과 주소저를 곤경에 빠뜨린다. 임유린과 한왕의 공모로 인해 전쟁터에서 임희린이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모함을 받고 돌아오자 임유린은 소년 무뢰배를 매수하여 임희린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이 소년 무뢰배는 주소저의 비밀 참모인데 임유린은 도리어 이들에게 잡혀 복숭아나무에 묶여 매우 심한 육체적 고통

을 느낀다. 산 속 복숭아나무에 묶여 육체적 고통을 겪던 임유린은 산 속을 지나가던 신야지부 목영에게 구조된다.

목영은 임유린의 인물과 언변에 반해 임유린을 자신의 수양딸인 풍소저와 혼인을 시킨다. 목영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임유린은 한왕과 반관옥과 어울리며 임희린을 해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른다. 임유린의 정체를 알게 된 풍소저는 임유린의 잘못을 엄절하게 말하고 임유린이 개과하기 전에는 부부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고 하며 임유린의 개과를 권유한다. 임유린이 목영의 집에 의탁하는 동안에는 임유린의 악행에 대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징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소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거부하며 남편의 잘못을 준절히 꾸짖는 것은 임유린의 내면 갈등을 촉발하는 동기가 된다. 풍소저가 임유린에게 개과하기를 권유하자 임유린은 풍소저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신다 해도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 살아갈 수 없으며, 아버지가 불고이취(不告而娶)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한국고전소설총서』2, 221면)”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임유린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깨우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악행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 임유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 임유린의 각성과 회개가 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목영이 절강 태수로 옮겨가게 되자 임유린은 더 이상 목영의 집에 의탁할 수 없어서 산천을 떠돌게 된다. 임유린은 한 명의 시동과 나귀를 데리고 주막에 머물다 채미산 용선동에 들어가 도사를 만나게 된다. 도사는 임유린이 저지른 악행을 나열하고 깨달을 ‘오(悟)’자를 써주며 회개하라고 충고한다. 임유린은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환하게 말하는 도사의 말을 듣고 흐르는 땀이 옷을 적시고 모퉁이 송연하여 “소자가 타고난 운명이 기구하여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약법(約法)을 어겼으니

죽으려 해도 죽을 땅이 없습니다. 이제 선생의 제자가 되어 산중에서 수도하고 향을 받들어 후세를 닦으려고 합니다.(『한국고전소설총서』3, 239면)”라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회파하는 의지를 보인다. 임유린과 도사의 만남은 임유린의 각성을 촉발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

그러나 임유린의 회파에 대한 의지는 대원수가 된 임희린이 공을 혁혁하게 세우고 행군하는 모습을 보자 한번에 꺾이고 만다. 임희린에 대한 시기심을 이기지 못한 임유린은 숨어서 활을 쏘아 임희린을 죽이려고 하지만 활시위를 당기려는 순간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저지당한다. 임유린은 도사가 써준 깨달음 ‘오(悟)’자를 떠올리며 활을 쏘지 못한다. 그리고는 객점에 돌아가 병이 든다. 임유린은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방세를 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의복을 팔아서 연명한다. 그것도 모두 바닥나자 임유린은 시동과 나귀를 이웃집에 팔고 객점 주인에게 밀린 식대를 지불하고 약간의 음식을 사서 병든 몸을 구완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 임유린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하늘이 지은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지은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이 누구의 탓이겠는가? 모두 나의 죄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리오? 지금 무슨 면목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는가? 차라리 자결하여 이 괴로움을 잊으리라(『한국고전소설총서』3, 247면)”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렬한 후회를 한다. 이처럼 임유린은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유린이 후회하고 각성하는 모습은 고난의 강도가 강할수록 깊어지고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유린의 각성과 회파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서야 임유린의 완전한 회파가 가능해진다.

임유린은 병이 낫자 임희린이 촉땅을 정벌하고 승승장구하여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임희린을 해치고자 한다. 임유린은 임희린이

뱃놀이를 하는 틈을 타서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작은 배를 세내어 타고 임희린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임유린의 악행은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던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임유린을 태운 뱃사공은 인육을 사람에게 먹여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이는데 임유린은 이들의 소굴에 잡혀 들어가 하루아침에 인간 만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죽음을 목전에 둔 임유린은 하늘을 우러러 목놓아 탄식한다. 임유린은 “나의 죄과로써 이렇듯 양화를 받음을 깨닫거니와 차마 부모가 남겨주신 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할 줄은 어찌 생각했겠는가? 사오 년을 도로에서 방황하여 부모의 존망을 그리워하다가 필경은 온몸이 칼에 짓이겨 참담한 곳에 욕을 받으니 내가 진인의 가르침과 풍씨의 어진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이다. 비록 배꼽을 물고자한들 미치겠는가?(『한국고전소설총서』3, 253면)”고 하며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처지를 슬퍼한다. 죽음을 목전에 둔 임유린의 각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임희린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가까스로 임유린은 구출되지만 임유린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가 임유린을 다시 물고 가버린다. 임유린의 악행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임유린이 겪는 고통도 최고조에 달한다. 임희린의 군사들에게 다시 한 번 구원을 받은 후에야 임유린은 완전한 각성을 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변한다. 각성하여 회과하는 임유린의 모습은 “여러 해에 쌓은 과악은 그림의 떡이 되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갈 뜻이 춘몽을 처음으로 깬 듯 마음에 근심하고 부끄럽고 또 두려워 심혼을 정하지 못하였다.(『한국고전소설총서』3, 266면)”로 서술된다. 임유린의 회과과정은 임유린의 내면갈등으로 드러나고 이것은 임유린의 성품이 점차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임유린의 삶은 악행을 저지르고 악행이 좌절되면서 고통을 받

으면서 점진적으로 각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임유린의 악행이 강해질수록 임유린에게 가해지는 고난도 강해지고 임유린의 정신은 점차로 각성의 단계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각성의 서사구조는 독자의 몰입을 촉진시키며 임유린의 인격의 성숙, 정신의 성숙과정을 서사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인격의 성숙, 정신의 성숙의 의미를 보다 인상적이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2) 규제의 일탈과 징치에 대한 반복 서술

임유린 서사구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유린 서사는 악행과 고난, 각성의 과정을 잘 드러내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어떤 사건들에 대한 반복 서술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건은 1번 일어나지만 이 사건은 다른 인물의 시각이나 발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반복 서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임유린의 행동은 유교적 이념에서 일탈하는 행위이다. 이 일탈 행위는 임유린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임유린의 일탈 행위는 <성현공숙렬기>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임유린의 일탈 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임한주가 작성한 5장 약법이다. 이 5장 약법의 내용은 임유린의 서사에서 여러 번 반복 서술된다.

기일약은 상봉 존당부모호여 불곰녁명스지호고 불출문외방쇼호며, 기이 약은 탐활무도호 권척을 사괴고 탕자탈 동당호여 취변이 문호의 비예호고, 기슴은 부귀를 탐하여 부형의 명 업시 그릇 일흠을 용방의 거러 조아만의 석권턴하로 경계호미오, 기스는 스욕을 방즈히 호여 월장찬혈의 누형과 불고이취의 방즈흠과 동탁의 녀총 겁척호듯호 읍난을 경계호미오, 기오는 스치방벽호여 언을 교이호며 식을 녕히 말며 츠 푸는 푸즈와 술 파는 푸즈의

들지 말나. (『한국고전소설총서』1, 390~391면)

위의 예문은 5장 약법의 구체적 내용이다. 임한주는 5장 약법을 작성하여 임유린에게 도장을 찍게 하고 이것을 어길 시 엄벌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한다. 5장 약법은 집안 어른의 명령을 어기고 사사롭게 행동하지 않고 문밖에 나가 방소를 두지 말 것(1장), 욕심 많고 도가 없는 권척을 사귀지 말고 탕자와 어울려 더러운 말이 나게 하여 문호를 더럽히지 말 것(2장), 부귀를 탐하여 부형의 명 없이 과거시험에 나가 잘못된 이름을 용방에 걸지 말 것(3장), 사사로운 욕망을 방지하게 하여 담을 넘고 구멍을 뚫는 더러운 행실과 불고이취(不告而娶)의 방자함과 동탁이 여충을 겁탈하는 음란함을 행하지 말 것(4장), 사치와 말 꾸미기, 차 팔고 술과는 곳에 가지 말 것(5장)이다. 5장 약법의 내용은 선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지조항이다.

이런 분명한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유린은 5장 약법을 하나씩 어긴다. 임유린의 서사는 이 5장 약법을 어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임유린은 아버지가 집안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눈을 피해 이미 1장과 2장을 어기고, 아버지가 출정하고 집을 비우자 거리낌 없이 3장, 4장, 5장을 어긴다. 임한주가 5장 약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임유린의 행위를 단속하려 하지만 임유린은 이 5장 약법의 금지조항을 보란 듯이 어긴다. 독자는 임유린의 일탈 행위를 읽으면서 임한주가 제시했던 5장 약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 5장 약법의 내용은 태부인의 말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난다. 13세가 된 임유린은 성욕이 발동하여 동네 선비 유겸의 딸과 혼인하고 싶어 혼인 의사를 전달하나 유겸에게 거절당한다. 임유린은 앙심을 품고 유소저를 겁탈하기 위해 밤에 담을 넘어갔으나 노복에게 잡혀 형부에 고발당

한다. 태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임유린의 죄상을 열거한다. 태부인이 열거하는 임유린의 죄상은 곧 5장 약법을 어떻게 어겼는가를 또 한번 정리하여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임유린의 죄상을 밝히는 태부인의 발화는 5장 약법의 내용과 임유린의 일탈의 행위를 3번째 반복 서술하며 임유린의 행동을 요약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성현공숙렬기>에서 임유린의 일탈 행위가 다양하게 반복 서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5장 약법은 절제, 수행, 정숙을 강조하는 것으로 선비로서 지켜야하는 유교적 덕목이다. 그러나 임유린은 이것을 거부하며 자신의 욕망을 하나씩 드러낸다. 임유린의 행위는 도덕과 윤리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적 욕망을 분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임유린의 서사는 유교적 덕목을 어기고 임유린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5장 약법에 대한 반복 서술은 임유린이 보여주는 일탈 행위를 독자가 여러 버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번 일어난 사건을 여러 번 반복 서술하는 것은 임유린의 악행을 징치하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임유린이 복숭아나무에 발가벗겨진 채 거꾸로 매달리는 사건과 도적에게 잡혀 인육이 될 뻔하고 다시 호랑이에게 물려가 호랑이밥이 될 뻔한 사건이 그것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 번 반복 서술된다.

임유린은 임희린을 죽이기 위해 돈으로 무뢰배를 매수하지만 임유린의 계약은 도리어 임유린의 징치로 돌아오게 된다. 임유린은 주소저의 참모들에 의해 옷이 찢기고 발가벗겨진 채 깊은 산 속 복숭아나무에 거꾸로 묶인 채로 유기된다. 이 사건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2번 반복되어 서술된다. 한 번은 서사가 진행되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술이고 다른 한 번은 서사가 진행되는 시간이 역전되어 목

영에게 임유린이 구조되는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의 반복 서술에서는 임유린이 당하는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코믹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첫 번째 서술에서는 주소저의 참모들이 임유린을 복숭아나무에 매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군자이다. 저 같은 소인놈을 거기에 매달면 목신(木神)이라도 누추해 할 것이니 간 특한 복숭아나무에 달 것이다.”라고 하며 임유린을 처음에는 소나무와 대나무에 묶었다가 복숭아나무 제일 높은 나뭇가지 위에 거꾸로 매달고 박장대소한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임유린의 두려움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대조되어 코믹한 상황을 연출한다. 사대부가 자체가 악행에 대한 징치로 벌가벗겨져 복숭아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은 일상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엽기적인 사건이다. 악행에 대한 징치의 방법이 놀랍고 임유린의 고통을 희화화하는 참모들의 태도가 독자에게 재미를 준다.

두 번째 반복 서술 역시 임유린이 발가벗겨진 채로 복숭아나무에 묶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묘한 웃음이 묻어날 수 있다. “수목이 뻑뻑하고 가시나무가 자옥하게 나 있는 곳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있었다. 목영이 놀라 교자를 재촉하여 차차 들어가니 한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결박당하여 복숭아나무에 달려있었다. 발은 하늘을 가리키고 머리는 땅에 박혀 있었고 모든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고 있었다.”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임유린의 상황이 애절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살려달라는 임유린의 울음소리, 임유린이 전라(全裸)의 몸으로 거꾸로 묶여있고, 까마귀와 까치가 임유린을 둘러싸고 울고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대단한 위기의 순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더 이상 독자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임유린의 긴박감은 임유린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독자에게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독자는 이런 엽기적인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임유린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임유린의 고난은 독자의 긴장감을 조성하지 않고 웃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성현공숙렬기>에서 또 반복 서술되는 사건은 임유린이 인육을 넣어 만두를 만드는 가게에 잡혀 들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사건이다. 아래 예문은 임유린이 만두가게에 잡혀가 인육이 되기 직전의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안호로서 혼 대한이 나오니 눈이 뻘뻘 붓고 나룻손 창디 굵으며 거문 얼굴의 흉녕함미 흑살귀신이라. 유린을 보고 우음을 찌여 스공과 혼가지로 브을고 후당으로 드러와 두목을 불너 왓 물을 더혀 오라. 저 쇼년을 목욕곰기리라 이욱고 물을 더혀와 유린의 옷슬 벗기고 물의 너호려 호거늘 유린이 보고 웨여 왓 널위는 년고를 니르라 스람을 꺾박함미 이 굵노 대인이 쇼왓 녀를 임의 죽이게 되어서니 괴이지 아니리라. 이곳은 인소점이라 호느니 우리 본디 싱계호기를 인육을 달화 직인을 먹이면 정신이 혼미호여 인스틀 모를 썩를 타 지물을 탈취호느니 목욕곰겨 만두를 너이려 호노라 말을 맛고 두목을 불너 왓 큰 도마를 ㄱ저드가 이 인체를 도히 달화 기름의 브리고 낭념을 ㄱ초아 맛있게 달호라 호니 머리 험슈룩호고 야치 굵흔 서너 머흙 놈이 죄우로 너드라 유린을 브러 느리오니 유린이 그 말과 이 거동을 더호미 혼이 스러지고 간담이 썩러지는 듯호나 일단 담기 과인호지라. 제 엇지 스람을 간터로 먹으리오 호여 그 거동을 보니 두 놈이 싱을 찢기며 니르디 전의 스름드룬 피 〃 듯겉기로 가쪽을 벗기고 니겼더니 초인은 살이 옥 굵고 가쪽이 유호니 그저 너이스이다 대한 왓 너히 조홀 디로 호라 모든 놈이 싱을 깨드러 도마의 누히고 혼 놈은 일변으로 기름을 브리며 호 놈은 칼을 들고 싱을 곁호며 혼 놈은 마늘 파를 진닉이는 소리 진동호여시니 (『한국고전소설총서』3, 250~253면)

살아있는 사람을 씻겨 도마에 올려 고기처럼 다지고 갖은 양념을 버무려 만두소를 만든다는 모티프는 매우 공포스럽고 혐기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공포스럽고 혐기적이지만 우스꽝스럽게 서술되고 있다. 인간 만두를 만드는 도적들의 외모가 매우 공포스럽게 묘사되어 있고, 임유린을 잡아다 발가벗겨 씻기고 도마 위에 올리고 옆에서는 기름을 끓이고, 갖은 양념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속도감 있게 서술되어 긴박감을 더한다. 이러한 과정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임유린의 공포감은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임유린이 느끼는 긴박감과 공포감이 독자에게 그대로 전이되지는 않는다. 독자는 임유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도적 두목은 부하들에게 “큰 도마를 가져다가 이 인체를 좋게 다루어 기름에 끓이고 양념을 갖추어 맛있게 만들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부하들은 임유린을 목욕시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전의 사람들은 더러운 껍질이 두껍기에 가죽을 벗기고 익혔는데 이 사람은 살이 옥 같고 가죽이 부드러우니 그냥 익혀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신기해하기도 한다. 이런 말은 간담이 떨어져가는 공포를 느끼는 임유린의 상황과 대조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도적의 무리들이 사람을 잡아 인육을 다져 만두소를 만들어 만두를 만든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도 매우 공포스럽고 혐기적이다. 그러나 인물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지 않고 객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공포와 혐기가 오히려 자극적인 재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서술에 뒤이어 임희린의 군사들이 임유린을 구해주지만 난데없는 백호가 나타나 임유린을 물고 가는 사건이 나타난다. 임유린은 깊은 동굴에서 또 한 번 호랑이 밥이 될 지경에 이르지만 임희린의 군사들에게 구조를 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성현공숙렬기>에서 7번 반복 서술된다. 사건 자체가 객관적인 방식으로 서술되기도 하고, 서술자의 관점으로 서술되기도 하며, 임유린의 생애를 요약 제시하면서 이 사건이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임유린이 자신의 말로 자신의 삶을 총정리하면서 이 사건이 언급되고, 풍소저의 꿈에 임유린이 인소점에서 겪은 사건과 호랑이에게 잡혀간 사건이 보여주기 방식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임유린이 풍소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사건은 반복 서술되고 임유린이 회고하여 글을 써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기록할 때도 인육을 파는 만두 가게에 잡히고 호랑이의 밥이 되게 된 사건을 반복해서 서술<sup>11)</sup>하고 있다.

똑같은 사건을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임유린의 악행에 대한 인간과 하늘의 명쾌한 징치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임유린이 완전한 선인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소점 사건과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건에 대한 반복 서술은 이런 표면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는 독자의 관심을 텍스트에 오래도록 이끌기 위해 놀랍고 충격적인 임유린의 사건을 반복 서술한

11) <성현공숙렬기>의 후편인 <임씨삼대록>에도 이 사건이 다시 서술된다. 바로 임씨 가문의 기록인 일기에 이 사건이 상세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다. <임씨삼대록>에도 이 사건이 매우 긴 분량으로 요약 제시되는 것을 본다면 임유린의 인소점 사건과 호랑이에게 잡혀간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씨삼대록>에서 임유린의 아들 임관홍은 집안 일기에서 아버지의 악행과 복숭아나무에 벌거벗겨진 채 거꾸로 매달린 사건, 인소점 사건, 호랑이에게 잡혀간 사건을 읽고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 임관홍은 관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처사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간다. 조혜란은 이런 임관홍의 충격과 고민 및 내면 갈등은 장편가문소설에서 성찰하는 개인이 출현했다는 징표로 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임유린의 악행의 징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전편인 <성현공숙렬기>는 물론이고 후편인 <임씨삼대록>에서 중요하게 서술된다.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 『고소설연구』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285~286면.

다. 서술자는 이 사건을 반복 서술함으로써 독자에게 여러 버전의 자극적인 재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반복 서술이 제공하는 자극적인 재미 때문에 독자는 <성현공숙렬기> 전편에서 이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임유린 사건을 흥미롭게 읽게 되는 것이다.

#### 4.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 서사를 읽는 재미

##### 1) 현실의 평균적 인간형 창출과 리얼리티

앞의 인물 형상화 방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은 장편가문소설의 악인형 인물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악인형 인물과 다른 측면이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악인형 남성 인물은 악행의 결과로 죽음을 맞기도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개과하는 두 방향으로 형상화된다. 이 중 임유린은 개과하는 악인형 남성이지만 보다 개성적인 면모가 보인다. 그것은 바로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균적 인간형이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임유린은 뛰어난 외모와 언변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숙부, 할머니는 임유린을 부족한 인간으로 여기며 좋지 않게 생각한다. 텍스트 곳곳에 임유린의 행동과 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임한주는 “어진 것을 세워 가문을 흥하게(『한국고전소설총서』1, 55면)”하기 위해 대현군자의 면모를 지닌 임희린을 임씨 가문의 적장자로 삼는다. 서술자의 서술시각 역시 임한주의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서술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임한주는 혈육이라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가문을 우선시하는 명분론자이며 유교적 가치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 임한주는 매사에 근신하고 수행하는 모습

을 보이는 임희린에게 못미치는 임유린의 함양미달의 모습을 타박하며 임희린을 편애한다. <성현공숙렬기>의 결말과 지향점은 임유린이 유교적 가치를 체내화하여 처사의 삶을 살며 임씨 가문의 맑은 덕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그렇다고 개과하기 전의 임유린의 모습에 무조건적으로 비판과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임유린이 그런 행동과 악행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임유린을 동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을 보여주는 서술도 꽤 있다. 임유린이 사촌형 임희린과 형수 주소저를 시기하고 없애려고 결심한 이유는 아버지의 부당한 결정을 순수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임유린은 자신이 임씨 가문의 실제적 적장자이지만 아버지의 편견과 편애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임씨 가문의 실제적 적장자가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아버지 임한주와 대립각을 세운다. 임한주와 임유린의 갈등은 임씨 가문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유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고와 개인의 욕망을 먼저 생각하고 유교적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가 팽배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성현공숙렬기>는 선과 악, 가문 중심주의와 개인 중심주의의 대립에서 최종적으로 선과 가문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이야기이지만 임유린의 인물 형상화 방향 속에서는 악행과 개인 중심주의를 이해하게 하는 대목들을 자주 읽을 수 있다. 임유린은 보통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임한주가 임희린을 적장자로 삼겠다는 결정을 철회했다면 임유린의 욕망은 현실에서 충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유린의 욕망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다. 임유린이 임희린처럼 유교적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이념적 인간형이라면 임씨 가문의 적장자 자리를 사촌 형에게 양보할 수 있었지만 유교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현실적 인간형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유린의 악행은 유교적

가치를 체내화하지 못한 보통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원래 가져야할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친아들보다 조카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임유린은 비뚤어진 것이기에 독자는 임유린을 완전히 미워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독자가 악행을 저지르는 임유린도 피해자라는 동정적 시선을 가지게 하고 임유린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성현공숙렬기>에서 임유린은 가문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적장자를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평범한 인간형이다. 이런 임유린의 모습은 평범한 인간이면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며, 보다 현실적인 평균적 인간형을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인물은 유교적 관념에 충실한 주인공과 그렇지 않은 반동인물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형상화된다. 효와 우애, 가문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진 인물은 선한 인물이며, 불효와 형제간의 불화, 가문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인물은 악한 인물이라는 관념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은 장편가문소설의 일반적 주제의식인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강화, 가문 중심주의를 드러내기 위해 인물의 성격과 기능은 이러한 배치 속에서 설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편가문소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악인형 남성 인물은 처음부터 악인으로 설정되거나 악행의 죄질이 나빠 동정과 이해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독자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은 장편가문소설의 이분법적인 인물형상화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악인형 남성 인물이 보여주는 전형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어서 <성현공숙렬기>를 읽는 재미를 더한다. 임유린은 장편가문소설의 전형적인 악인과 다른 인물이며, 선과 악의 경계에 있는 경계적 인물이고, 남성 악인 중에서 새롭게 성격화된 인물이라

고 할 수 있다. 임유린의 악행에 대한 원인, 임유린이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평범한 인물이라는 시각은 인간의 성품을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고 흥미롭다.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이 유교적 이념이고 이 가치에 견인되며 살아가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 이념을 내면화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이념적 인물형보다는 임유린과 같이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인물형이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평균적 인간형일 가능성이 크다. 임유린은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주인공과 유교적 가치를 부정하여 정치되는 반동인물 사이에 존재한다. 임유린이 현실의 평균적 인간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는 임유린에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임유린이라는 악인형 남성 인물의 창조는 <성현공숙렬기>의 소설적 리얼리티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2) 정신적 성장의 해석코드의 활성화와 자기 투영

임유린 서사의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임유린 서사는 악행과 고난, 각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 악행과 고난, 각성의 구조는 임유린이 겪는 인식적 혼란과 각성의 과정이 임유린의 정신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임을 독자가 간파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유로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각성의 서사구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정신의 성장이라는 해석코드를 활성화하여 <성현공숙렬기>의 익숙한 교훈적 메시지를 새롭고 강렬하게 받아들여 독자가 자기의 일상을 투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임유린의 서사구조는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갖은 고난을 당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변하여 시가(媿家)로 복귀하는 서사구조와 닮은 점이 많다. 장편가문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이 겪는 슬한 고난은 다시 시가

(媿家)로 돌아와 가문의 안주인이 되기 위한 통과례적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현공숙렬기>의 임희린의 아내 주소저의 고난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임유린의 악행의 결과로 고난이 가해지고 이 때문에 임유린 스스로가 집을 나오는 것이 다를 뿐 여성 주인공이 악인에 의해 지난한 고통을 겪고 구원자에 의해 목숨을 건지고 은둔했다가 다시 시가(媿家)로 복귀하는 구조와 상동적이다. 그렇다면 임유린의 서사가 여성 주인공의 고난 과정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유린의 서사구조는 정신적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며 이것을 읽는 독자가 인물의 정신적 성장의 과정을 목격하도록 한다. 독자는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각성의 서사구조에서 온전한 인격을 완성해가는 임유린을 발견한다. 임유린의 서사구조는 독자의 정신적 성장의 해석코드를 활성화시키는 독서과정이며 독자의 현실적 삶을 임유린의 삶과 나란히 놓고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각성의 과정은 매우 점진적인 형태로 전반부에는 악행의 과정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중반부와 후반부로 갈수록 고난과 각성의 과정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임유린의 서사구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유린의 깨달음과 회과의 결정적인 계기는 죽음을 목전에 둔 2번의 사건에서 받은 깊은 고통과 충격 때문이다. 악행을 저지르고 징치를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임유린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악행을 후회하기는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 구출된 후에야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회과하게 된다. 이것은 '춘몽'에서 깨듯 명확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임유린이 선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임유린의 각성을 지켜보는 독자의 의식 또한 임유린의 인식적 전환을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숭고하게 생각할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악인이 이처럼 많은 고난을 겪고 갈등과 고민의 과정을 겪으며 각성의 단계로 나간다는 설정은 쉽

게 찾아볼 수 없다.

<유효공선행록>에서도 임유린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악한 아우 유홍이 등장한다. <유효공선행록>의 유홍은 어진 형 유연을 시기하여 어리석은 아버지에게 형을 모함하여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 갖은 악행으로 형과 형수를 없애려는 악인형 인물이다. 그러나 악행을 저지르는 유홍에게 가해지는 고난은 임유린이 겪는 심각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유홍은 임유린과 비슷한 악행을 저질렀지만 유홍에게 가해지는 고난은 유배를 가고 아버지의 애정을 잃어버리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유홍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은 유배기는 도중에 병이 나 죽을 고비를 겪는 것이다. 유홍의 회과의 과정 자체도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의 회과의 과정처럼 점진적이지 않다. 유홍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배지에서 돌아와 형과 형수의 어진 마음을 확인하면서 선인으로 변하고 형과의 우애를 회복한다. 유홍의 심적 갈등과 고민, 후회와 슬픔, 각성의 깊이는 임유린의 그것과는 쉽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 서사는 미숙함의 단계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점차로 자신의 악행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드러내며 번민하고 각성을 통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정신의 성장을 보여주는 성장소설로 읽힐 수 있다. 그것도 선한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악인형 인물의 삶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강화하는데 이것은 독자가 보다 정신적 성장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지극한 효와 우애를 드러내는 임희린과 현숙한 덕과 효를 드러내는 주소저의 고난의 서사에서도 정신적 성장의 의미를 읽을 수 있지만 이들의 서사에서는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각성의 서사구조에서처럼 인물의 정신적 성장의 구체적 모습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없다. 임희린과 주소저의 고난의 서사는 장편가문소설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임희린

과 주소저의 고난의 서사에서는 각성을 통한 성숙의 의미보다는 선의 승리로 천리를 보여주는 익숙한 교훈적 메시지를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두 주인공의 서사에서 독자의 현실적 삶을 곧바로 연결시키기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임유린의 서사구조는 독자가 임유린의 내면 갈등, 후회, 각성이라는 변화를 읽으면서 독서과정에서 정신적 성장이라는 해석코드를 활성화시키면서 독자가 자기 모습과 삶을 투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성현공숙렬기>가 대현군자 임희린과 현숙한 주소저의 내용으로만 서사를 끝냈다면 <성현공숙렬기>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스테레오 타입의 장편가문소설로 독자에게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는 임유린의 서사구조를 읽으면서 텍스트 밖의 독자의 현실적 모습을 견주어 살펴볼 수 있고 임유린의 점진적 개과과정을 통해 인간의 성품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의 서사구조에서 보여주는 정신적 성장의 종착점은 인간의 본성이 '선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회과책선(悔過責善)은 성인도 허락하신 바이다.' '회과천선(悔過遷善)은 성인이 허락하신 바이다' '회과자책(悔過自責)'은 성인도 허락하신 바'라는『논어』의 가르침은 <성현공숙렬기>의 여러 인물의 입을 통해 강조되는 말이다. '잘못을 고치면 선하다'는 말은 임유린의 악행에 주어지는 면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선(善)'의 관념은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선함은 형을 시기하고 해치려는 마음을 풀어버리고 겸손하고 사려 깊은 선비가 되어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유교사회에서 칭송되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각성의 서사구조는 유교적 이념의 당위성, 유교적 이념을 내면화해야 하는 필요성, 유교적 가치의 우월성과 같은 일반적이고 딱딱할 수 있는 교훈을 정신적 성장이라는 실천적 메시지로 변형하여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임유린의 서사는 임유린의 개과가 지난한 고통과 고난, 각성의 과정에서 얻어지고 이것이야말로 보통의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값진 경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임희린과 주소저의 서사구조에서 산출되는 교훈적 메시지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장편가문소설의 독서 경험에서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익숙한 것이지만 임유린의 서사구조는 인간의 정신적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악인의 지난한 고난과 각성이 독자의 독서과정에서도 커다란 정신적 깨우침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유린의 고난과 각성의 서사구조는 그만큼 독자의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각성의 서사구조는 교훈성을 새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낯설게 하기의 방법으로 독자를 텍스트 속에 끌어들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성현공숙렬기>에서 임유린의 서사는 깨달음과 교훈을 식상하지 않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당의정(糖衣錠)’ 같은 역할을 한다.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각성의 서사구조를 고안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임유린 서사가 독자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도록 하고 <성현공숙렬기>를 인상적인 작품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은 임유린의 서사구조가 악인형 남성 인물의 정신적 성장의 의미를 담지하면서 동시에 독자의 정신적 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 3) 쾌락원리의 구현과 자극적 재미

임유린 서사의 사건 서술방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규제에 대한 임유린의 일탈 행위와 악행의 징치는 반복 서술됨으로써 텍스트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쾌락원리를 구현하여 자극적인 재미를 제공한다. 약법 5장의 제시와 약법 5장의 위반에 대한 반복 서술은 표면적으로 보면

임유린의 행위를 경계하고 꾸짖기 위한 것이지만 역으로 보면 규제에 대한 일탈과 인간의 내면적 욕망을 반복해서 말하고 이것을 듣는 것이 된다.

임유린의 욕망과 일탈의 서사는 임희린의 절제와 수행의 서사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인간의 숨겨진 무의식적 욕망을 분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성현공숙렬기>의 서사논리는 이것을 규제하고 금지하지만 반복 서술은 서술의 층위에서 무의식적 욕망을 풀어놓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의 흥미와 재미가 최대화될 수 있다. 흥미와 재미는 독자의 관심과 공감의 선행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임유린의 욕망과 일탈의 서사에서 독자가 흥미와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의식적으로는 임유린의 욕망과 일탈의 서사가 옳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눈여겨본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임유린의 욕망과 일탈의 행위에 대한 반복 서술은 인간이 지닌 무의식적 욕망을 거리낌 없이 분출하고 표현하여 쾌락원리를 재현하는 방법이 된다. 단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억누르는 서사논리에 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의미화되지만 임유린의 욕망과 일탈에 대한 반복 서술은 인간이 지닌 현실적 욕망과 일탈의 충동을 재현하고 이것을 서술자와 독자가 공모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유린의 욕망과 일탈의 서사뿐만 아니라 임유린의 악행을 교정하고 징치하는 수단으로 들어오는 사건 역시 여러 차례 반복 서술된다. 전라(全裸)로 복숭아나무에 매달려 울부짖는 임유린, 인소점에 잡혀 전라(全裸)로 인육이 될 뻔한 사건, 호랑이에게 물려가 호랑이의 먹이가 될 뻔한 사건은 대단히 놀랄만한 것이다. 특히 임유린이 인소점에서 인간 만두가 될 뻔한 사건과 호랑이가 임유린을 물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1번 일어났지만 똑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7번 반복하는 것은 이 사건이 대단히 놀랍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임유린의 악행에 대한 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징치의 방법이 대단히 육체적이고 엽기적이며 회화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임유린에 대한 징치는 임유린이 쌓은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인과응보의 방법이 다른 장편가문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엽기적이고 잔혹한 하드코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인이 전라의 상태로 복숭아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전시되고 별거벗겨진 채로 인육을 만드는 도마에 오르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육체적 존재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대목이다. 또한 복숭아나무에 매달아 산짐승의 밥이 되게 내던지거나 칼로 신체를 다져서 만두 속에 넣어 다른 사람을 먹이고, 그 만두를 먹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의 재물을 탈취한다거나 호랑이 밥이 되게 하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상상력을 징치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아무리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위로 악행을 징계한다는 것은 걱정하고 서사에서 무의식적 욕망과 쾌락을 펼쳐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서술하는 구체적인 상황 또한 매우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독자가 임유린의 고통과 공포에 대해 무감각하게 느끼고 이 상황을 구경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건들은 곧 악행에 대한 징치 행위라는 합법적인 의미를 부여받지만 징치라는 합법적인 방법도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잡은 쾌락원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소설적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현공숙렬기>는 재미와 교훈을 잘 버무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임유린의 욕망과 일탈은 무의식적 욕망을 분출하는 과정이며, 욕망과 일탈에 대한 징계의 방법도 육체적이고 엽기적이다. 이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망과 쾌락원리를 소설 속에 구현하는 것이다. 임유린 서사는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없는 인간 욕망을 다양한 서술로 드러내고 쾌락원리를 합법적으로 드러내어 독자가 자극적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규제와 장치의 방법 속에도 쾌락원리가 드러나고 독자는 이것을 쉽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현공숙렬기>의 자극적인 재미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본 연구는 <성현공숙렬기>의 악인형 인물 임유린의 형상화 방법, 서사구조, 사건 서술의 방법에서 촉발되는 <성현공숙렬기>의 소설적 재미를 정치하게 논의하였다. <성현공숙렬기>에서 임유린은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범속한 인간형으로 형상화되고, 서술자의 반감과 동정의 이중적 시선을 받는 인물로 서술된다. 그래서 임유린은 독자에게 현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균적 인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소설적 리얼리티를 창출하여 새로운 재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임유린의 악행과 고난, 각성의 서사구조는 독자가 독서과정에서 정신적 성장이라는 해석코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익숙한 교훈적 메시지를 새롭고 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인물의 각성과 깨달음이 독자의 현실적 삶을 끌어들이 자기를 투영해보도록 하고 독자의 각성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임유린의 일탈 행위와 일탈 행위에 대한 장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서술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일탈 행위를 규제하고 일탈 행위를 징계하는 수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사건에 대한 과도한 반복 서술은 쾌락원리를 텍스트에 구현하여 독자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현공숙렬기>의 소설적 성취와 재미는 임유린 서사에서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현공숙렬기>의 대현군자 임희린과 현숙한 덕을 가진 주소저의 서

사는 장편가문소설의 주인공의 서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익숙함을 준다. 이에 반해 임유린 서사는 장편가문소설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악인형 인물의 서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 서사는 장편가문소설의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독자의 새로운 독서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임유린의 서사는 <성현공숙렬기>에 재미와 흥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동 편, 『(한국고전소설 총서)성현공숙렬기』1~3권, 태학사, 1983.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757~767면.
- 김수봉, 「성현공숙렬기 해제」, 『성현공숙렬기』1, 한국학술정보, 2011, 8~18면.
- 김종철, 「성현공숙렬기의 인물 형상에 대하여」, 『한국문화』18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111~112면.
- 문용식, 「성현공숙렬기의 인물 형상과 작품 구조」, 『국제어문』18집, 서경대 출판부, 1997, 69~91면.
- 박영희, 「18세기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갈등의 의미-〈성현공숙렬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187~216면.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143~168면.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120~185면.
-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27집, 동양고전학회, 2007, 8~34면.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89~419면.
- 조광국, 「고전소설에서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옥호

- 빙심, 『쌍렬옥소삼봉』, 『성현공숙렬기』, 『쌍천기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28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원, 2001, 55~83면.
-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154~205면.
-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 『고소설연구』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255~287면.
-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 <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59~394면.
- 최길용, 『성현공숙렬기 연작소설 연구』, 『국어국문학』95호, 국어국문학회, 1986, 133~168면.
-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 본 고전대하소설 속 당녀 연구』, 『여성문학연구』18집, 한국여성문학회, 2008, 197~232면.

ABSTRACT

The pleasure of reading the narrative  
of 'Im Yu-rin' in *Seongbyeongongsukryeolgi*

Kim, Moon-Hee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narrative of the villainous character, Im Yu-rin, draws novelistic interest in *Seongbyeongongsukryeolgi*. First of all, Im Yu-rin is described as an ordinary human being who pursues his realistic desire. He appears as a character who receives two different glances of hostility and sympathy from the readers. Im Yu-rin is accepted by the readers as an ordinary person, providing narrative reality to add fresh new interest.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evil deeds, hardship and disenchantment of Im Yu-rin lets the readers to embrace moral messages in a fresh and impressive way, with the frequent use of analysis code of cognitive development. It is particularly noticeable that the repeated narration about deviation of pressure and correction in the description of events. This realizes the pleasure principle to offer a stimulative and provocative pleasure to readers.

**Key Words** *Seongbyeongongsukryeolgi*, narrative of Im Yu-rin, interest, ordinary human being, analysis code for development, pleasure principle

논문투고일 : 2012. 04. 20  
심사완료일 : 2012. 06. 05  
게재확정일 : 2012. 06. 06